

국토교통부, 도심 속 위험건축물을 생활 SOC 시설로 정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2021. 4. 15.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대상지 현황



상. 경남 진주시 옛 영남백화점
중. 경북 청도군 공용버스터미널
하. 경기 여주시 시민회관

국토교통부는 경남 진주, 경북 청도, 경기 여주에 소재한 위험건축물을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시설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심 속 위험·장기방치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특별공모를 통해 발굴하였으며, 선정된 세 곳에는 도시재생인정사업* 방식으로 국비 등을 지원한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인정사업 외에 다른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에도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30년 동안 방치된 옛 영남백화점 건물(안전등급 D)을 철거하고 진주시 거점 이동복지센터를 조성한다. 옛 영남백화점은 1992년 부도로 영업이 중단된 이후 방치되었고, 2019년 큰 화재로 입은 바 있다. 화재로 깨진 창문의 유리 파편이 지난해 큰 태풍으로 인한 비바람에 주변으로 날아들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진주시는 초등학교 2곳과 청소년 거점복지시설이 위치한 입지의 이점을 살려 영유아 및 어린이 돌봄·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북 청도군 도시재생사업

1972년 준공된 노후 공용버스터미널(안전등급 D)을 재건축하여 주민 소통공간 및 공용주차장 등 복합기능을 갖춘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한다. 청도역과 청도시장 가운데에 위치한 거점 환승시설인 공용버스터미널은 구도심 쇠퇴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활기를 잃어 가고 있었다. 청도군은 기존 버스 환승 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에 부족한 주민소통공간, 생활체육 시설,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1층은 지역상인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 임대를 보장하는 상생협력상가로 제공하고자 한다.

경기 여주시 도시재생사업

1985년에 지어진 시민회관(안전등급 D)을 그린리모델링하고 생활 SOC 시설을 증축하여 시민아울센터로 탈바꿈시킨다. 도심에 위치한 시민회관은 문화·여가생활의 중심기능을 해 왔으나 노후화로 인해 2019년 이후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여주시는 시민회관 전면부 공터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청소년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복합 문화·예술의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없이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국비를 지원